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유용해요”



거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녀
고1



구독 기간
6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진로교사로 근무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육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내일교육〉을 알게 됐고, 입시와 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개별적으로 구독했습니다. 학교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고, 고1 자녀의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상담 자료로, 집에서는 자녀의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른 경로로도 입시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 〈내일교육〉은 필요한 내용을 한 권에 보기 쉽게 정리해줘 편리합니다. 특히 매주 발행되는 책자를 모아두니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기 쉽고, 아이에게 기사나 자료를 직접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하기에 좋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정리된 자료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설명할 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자주 활용하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아직 아이가 고1이라 특정 전형이나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진로교사로서 다양한 입시 사례를 접하다 보니 앞으로 아이에게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어떤 진로와 학습 방향이 가장 잘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교 생활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5등급제와 수시·정시 전형처럼 계속 변화하는 입시 정보를 지금처럼 꾸준히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점이 〈내일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로와 입시를 함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내일교육〉의 '전공을 부탁해' 기사를 추천합니다. 대학별 전공의 특징과 진로 전망을 교수의 전문과 재학생 인터뷰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해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입시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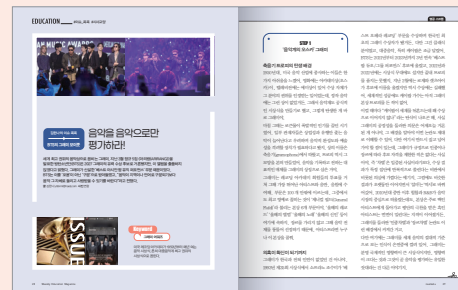


본지 1236호
'전공을 부탁해 |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기사 참고



WEEKLY THEME | 2027 수시 지원 가이드_내신 1.0~2.5등급대 합격 가져올 전형 조합은? 수시 원서 6 Pack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내신 구간별로 전형을 비교해 정리해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였어요.”



김한나의 이슈 콕콕 | BTS의 그래미 보이콧 음악을 음악으로만 평가하라!

“아이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기사라 자주 권하게 됩니다. BTS처럼 학생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 풀어져 자연스럽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수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나 면접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37호

1237호